

문명사의 한 페이지

20세기초 프랑스에서 신문은 일반 출판물에 비해 양적인 면 질적인 면 모두에서 일반 출판물보다 한 수 아래였다. 조르주 뒤뷔와 로베르 망드루가 함께 쓴 《프랑스 문명사》(김현일 옮김, 까치)에 보면 이같은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 나온다.

“인쇄물은 진보했다. 신문은 사진연판(寫眞鉛版)을 매우 신속하게 재현할 수 있는 블랭식 사진전송술 같은 새로운 기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종종 수치스러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하에 놓였던 프랑스 신문은 그림과 큰 제목을 너무 좋아했는데 중요한 문화수단이 되지는 못했다. 심지어 주간지(당시에 일간지들은 비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에 실린 기사도 항상 올바른 사상보다는 재치있는 문구나 멋있는 표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천박한 학식의 서생들에 의해서 조금씩 짜여진 잡문들이었다. 가장 진지한 신문으로 통한 《르탕(Le Temps)》지도 너무나 빈약한 지식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동명의 영국신문 《더 타임스》와는 비교도 될 수 없었다.”

당시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믿음직스럽고 수준있는 정보전달 매체는 단행본 책자였다. 갈리마르(Gallimard) 출판사는 단행본들이 누린 행복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산 증인이다. 당시에는 어느 신문, 어느 잡지이든 갈리마르에서 나온 소설책 한권의 부수를 따라잡지 못했다. 모국어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20세기초 프랑스의 가장 믿음직스럽고 수준있는 정보전달 매체는 단행본 책자였다. 어느 신문, 어느 잡지이건 간에 갈리마르에서 나온 소설책 한권의 판매부수를 따라잡지 못했다. 문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출판사를 가진다는 것은 해당국가의 커다란 자랑이다.

프랑스 지식인들에게 갈리마르는 자존심이자 자랑이었다.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갈리마르의 위치와 명성은 대단하다. 프랑스 근대 학문과 문학의 역사를 거론할 때 갈리마르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어느 나라 문명사에 일개 단행본 출판사가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겠는가.

갈리마르는 1911년 앙드레 지드, 슐링베르제 등이 주도했던 문예지 《NRF》의 편집장이었던 G. 갈리마르(Gaston Gallimard, 1881~1965)가 창립한 출판사였다. 그는 자신의 진취적 기질을 바탕으로 프랑스 신사조와 신문학의 요람을 가꾸어 나갔으며

당시에는 신진이었던 프루스트, 앙드레 말로, 폴 발레리, 루이 아라공, 폴 엘뤼아르 등의 작품을 출간했다. 특히 문예 종합지였던 신프랑스 평론 《La Nouvelle Revue Française》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비롯한 전유럽의 지식인들을 경도시켰으며 2차대전 이전의 후예는 사르트르, 까뮈 등의 작품을 출간해 세계 지식사를 뒤흔들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요람으로 더욱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는 출판 다각화에 성공, 각종 어학사전과 아동도서에서도 명성을 구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출판사에서 갈리마르에서 출간한 어린이 백과사전 등을 수입 출판하는 등 갈리마르의 책이 상당수 출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 정치는 늘 백치였다. 크기와 성장속도가 보이지 않는 ‘문화’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 교육이나 경제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먹고 살 만큼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도 이런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도 제자리 걸음이다. 문명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는 출판사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인 두께와 가능성을 웅변해 준다.



출판저널

통권 제179호/1995년 10월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화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한동림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욱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Henry DeWald

韓譯, 英譯專門
英文著書 代筆 現地出版
영문 자서전 영문팜플렛전문
미국 출판시장진출 상담

Henry Dewald 高級英語 SERVICE
Tel 557-6468/6469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 815호

숨쉬는 향아리

향아리는 장이나 김치에 깊은 맛을 더해 주는 발효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향아리가 '숨을 쉰다'고 말해 왔고, 옹기장이 역시 '장인'의 명예를 잃지 않았습니

책은 정신을 담은 향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인의 숨결이 담긴 책은 숨쉬는 향아리, 즉 좋은 책입니다.

임씨네 편집공방은 장인을 추구합니다.
임씨네 편집공방 사람들은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씁니다.

임씨네 편집공방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2306호(우)100-760
TEL. (02)776-5207, 5208 FAX. 776-5209